

한국은 과도한 수출 의존을 해소해야

* 이 자료는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총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동양경제일보 전환기의 한국경제 (‘15.5.22)」에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 IMF는 한국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을 우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

□ 내수와 수출, 균형 있는 성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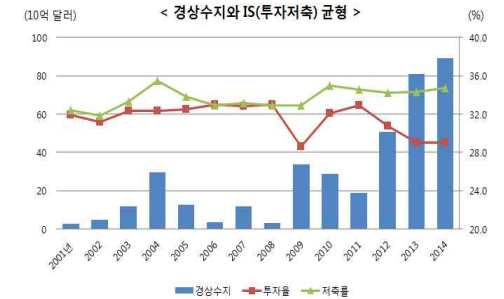
○ 한국과 IMF간의 연례협약에 대한 브리핑 결과, 다음 2가지 점이 주목

- ①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을 시정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의 실현을 권고
 - 한국정부의 금융·재정정책에 의한 내수 활성화 대책, 노동시장 개혁,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등이 포함된 잠재성장력 향상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경기 악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성하다고 지적
 -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기
- ② 환율 정책은 유연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지므로 환율 개입은 제한해 줄 것을 권고
 - 한국 국내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저 유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 환율 개입에 의한 원저 유도가 필요한 이유는 (1)한국은 내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성장이 어렵다는 것, (2)대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고용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증시해야 한다는 것, (3)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실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많고 시간이 걸리는 것, (4)지금까지 강구된 경기대책의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는 점, (5)일본이나 EU가 양적 금융완화 정책으로 통화 약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등임

□ 질 좋은 고용 창출이 필수

○ 최근 원고 진행은 경상 흑자 확대가 배경

- 2000년대 이후 투자·저축률 추이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계의 저축 지향성 향상, 기업의 투자 억제와 내부 유보 증가의 영향으로 저축률이 약간 상승
- 한편 투자율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재의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확대



- 이러한 흑자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줌으로써 투자와 저축의 격차를 축소시켜 경상 흑자를 감소시킬 필요
-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고용 환경의 개선, 특히 질이 높은 고용 창출이 필수
 -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와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
 -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동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低평가 문제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제언
- 중소기업은 인재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할 필요.